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관악구 벤처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Review and Prospects on Venture Firm Accumulation Center:  
The Case of Kwan-Ak Venture Town

최 지 훈\*

요약

이 글에서는 관악구에 소재한 벤처집적시설을 사례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집적시설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관악구 벤처집적시설에 입지한 업체들 대부분이 1997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들로 주로 소프트웨어개발을 담당하는 10명 이하의 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들의 연구개발형태와 혁신성정도를 살펴보면 신제품개발이나 기존제품개량과 같은 기술혁신분야는 상당히 앞서있는 반면, 기업간 공동연구와 같은 분야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나 아이디어의 출처를 살펴보면 기업내부와 대학연구기관 혹은 기업지원기관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업활동의 지역연계를 살펴보면 생산과 연구개발은 관악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판매 및 정보서비스 비중은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간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는 동일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고 애로사항 등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인력을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대관계는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향후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입지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시스템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 벤처기업집적시설, 네트워크, 지역 내·외 연계, 혁신

## 1. 서 론

최근 벤처기업들은 초창기와 달리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벤처기업의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sup>1)</sup>.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에 벤처기업 집적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러

한 잠재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즉 당초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목표였던 입지공급의 원활화, 협력과 경쟁을 통한 집적의 시너지 효과, 체계적 지원 및 지원효과의 극대화, 창업 및 사업화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따른 비용부담 축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벤처지원정책이 단순히 입주유도에 머물고 있을 뿐 지역경제효과를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지지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집적을 통해 이익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유·무형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내·외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네트워크 접근을 활용하여 서울시 벤처기업 집적지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육성하고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셋째,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사례로 선정하여 입주업체들의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네트워크 측면에서 바라본 벤처기업 입지

벤처기업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벤처기업의 성장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sup>2)</sup>. 반면 벤처기업의 입지에 대해서는 도시내부에서의 제조업 입지논의를 벤처기업에 적용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도시의 외부효과 등이 창업기업에게 보육효과를 준다는 인큐베이터 가설은 대표적인 예이다. 즉 창업기업은 대체로 소규모의 영세기업으로서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취약하고 불안정한 경영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정보 취득, 고객접촉, 다양한 부품의 확보 등 제반 도시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대도시 입지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각종 연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상

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새로운 제조업의 발전과 성장에 보육기(incubator)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이 논의는 대도시 입지의 다양한 측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간 관계 및 지역의 특성을 제조업 입지 및 지역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네트워크 접근<sup>4)</sup>은 이에 대한 대응논리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경제행위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시장(market)과 계층(hierarchy) 사이의 중간적 수준에 해당되는 거래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Cooke and Morgan, 1993, 543-546). 즉 단순한 경제적 수준에서의 계약관계나 기업내부 조직들간의 관계를 초월하는 비공식적인 연계, 관계의 지속성, 신용(trust) 등이 강조되는 상호관계를 의미한다(Cooke, Uranga, and Etxebarria, 1998, 1563-1584).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개념이 연구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기업조직과 유연적 전문화 논의에서였다. 이후 네트워크 개념은 산업지구 논의를 거쳐 더욱 정교해졌으며 더 나아가 혁신환경(innovation milieu) 및 혁신 네트워크(innovative network)에 관한 논의로 발전되었다. 최근 들어 네트워크 접근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풍부해지면서 지역혁신체계(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박경환, 2000, 5-11).

요컨대,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논의는 그 용어는 상이하지만 궁극적으로 과거 공급, 물리적 시설 위주에서 탈피하여 수요, 무형적 자산 등의 특징을 제조업 입지 및 지역성장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개념을 도시공간에 투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

표 1. 중심지 체계와 네트워크 체계의 비교

중심지 체계	네트워크 체계
중심성(centrality)	결절성(nodality)
규모 의존성	규모 중립성
지배와 종속	유연성과 보완성
수직적 접근성	수평적 접근성
일방향적 흐름	양방향적 흐름
운송비용	정보비용
공간상에서의 완전경쟁	가격 차별화로 인한 불완전 경쟁

자료 : D.F. Batten(1995), p.320에서 인용.

존의 도시공간체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시공간의 지배적인 논리였던 중심지 체계와 새로운 네트워크 체계의 특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네트워크 체계는 지금까지의 중심지체계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이는 기존의 중심-주변 관계를 벗어나 도시공간이 다차원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네트워크 접근으로 살펴보면 중소규모의 신생기업들, 특히 기술집약적인 산업들이 대도시내부로 '절대적으로 집중하는 현상'은 집적네트워크로, 기업들간의 네트워크 구조가 발전됨에 따라 공장시설들이 교외에 입지하게 되는 '상대적인

분산현상'은 분산네트워크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박경환, 2000, 11-20). 요컨대, 이와 같은 '절대적 집중 속의 상대적 분산' 혹은 '분산적 집중화' 현상은 네트워크 공간구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도시공간을 새로운 양상으로 재편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심-주변부의 중심지 체계가 더욱 완화된 도시내부에서 새로운 중심지가 부상하는 현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대도시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으로서 서울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서울의 공간은 벤처기업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군의 등장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서울시 벤처기업 집적지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서울시 벤처기업 집적지<sup>5)</sup>의 특성

2000년 9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8,635개의 벤처기업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 총 6,136개 업체(전체의 71%)가 입지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서울은 전체 벤처업체의 45%(총 3,860개)를 차지하

표 2. 전국 벤처기업 현황(2000년 9월 현재)

(단위 : 개수, %)

지역 \ 업종												
	합계	비중	11	12	21-29	31	32	33	34	35	36-40	
수도권	6,136	71.1	7	2	3,424	3	81	23	2,371	127	98	
서울	3,860	44.7	1	2	1,396		58	23	2,193	100	87	
경기	1,774	20.5	5		1,577	1	23		137	23	8	
인천	502	5.8	1		451	2			41	4	3	
비수도권	2,499	28.9	14	6	1,980	5	28	3	397	53	13	
전국	8,635	100.0	21	8	5,404	8	109	26	2,768	180	111	

주 : 11 : 농업, 임업, 어업, 12 : 광업, 21-29 : 일반 제조업, 31 : 전기가스 및 수도, 32 : 건설업, 33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4 :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사업, 35 : 연구개발, 36-40 : 기타 공공서비스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현황」, 2000

고 있다(〈표 2〉 참조). 서울 및 수도권에 이와 같이 많은 벤처업체들이 입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내부 분포를 살펴보면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한 동남부지역에 총 2,194개 업체가 집적되어 있으며(전체의 57%), 영등포구와 구로구를 포함한 서남부지역도 비교적 공간적으로 집중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3〉, 〈표 4〉 참조).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일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의 중심

으로 부상한 지역으로 벤처기업의 집적 양상이 매우 뚜렷하다. 이 중에서도 테헤란로주변에는 1,000여 개의 벤처기업들이 입지하여 전형적인 '자연발생형 벤처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강남구 포이동과 서초구 양재 2동 또한 새로운 벤처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 권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산업과 같은 소위 첨단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남부지역과는 대조적으로 도심, 동북부지역, 서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업종 또한 첨단산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

표 3. 서울시 벤처기업의 구별 분포 (2000년 9월 현재)

(단위: 개)

구	업체수	구	업체수	구	업체수	구	업체수
강남구	1,285	구로구	106	마포구	156	영등포구	306
강동구	43	금천구	81	서대문구	48	용산구	67
강북구	14	노원구	20	서초구	689	은평구	11
강서구	75	도봉구	9	성동구	97	종로구	84
관악구	120	동대문구	43	송파구	175	중구	116
광진구	127	동작구	68	양천구	56	중랑구	11
성북구	51	합계	3,860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현황」, 2000 재작성

표 4. 서울시 권역별 벤처기업 현황 (2000년 9월 현재)

(단위: 개수, %)

지역	합 계		11	12	21-29	32	33	34	35	36-38
	기업수	비중								
합계	3,860	100.00	1	2	1,387	58	23	2,191	100	87
도심권	267	6.92	0	1	79	5	1	156	13	12
동북권	372	9.64	1	0	198	3	3	150	4	2
서북권	215	5.57	0	0	68	2	2	130	8	5
서남권	812	21.04	0	0	382	11	5	377	18	19
동남권	2,194	56.84	0	1	660	37	12	1,378	57	49

주 : 도심권 - 종로, 중구, 용산  
 동북권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권 - 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 -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남권 -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현황」, 2000

표 5. 서울시 벤처기업 집적지의 지역별 특징

구 분	특 징
구로동과 성수동 일대	도시내부 네트워크와 해외수준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남. 기계제조업종이 강한 편이고 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임. 그러나 연구개발 기능이 약하고 국지화된 경제외적 환경도 빈약한 것으로 나타남.
구의동과 잠실동 일대	국지적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남. 신생기업 중심이며 정보통신 및 컴퓨터 업종의 특화 정도가 강함.
서초동, 양재-포이동 일대	다른 유형에 비해 집적의 규모가 공간적으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함. 국지적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남. 규모가 매우 작고 영세하지만, 연구개발 기능이 강하고 국지적 수준에서 기업간 협력 관계가 매우 강하며 지역소속감도 상당 수준 잠재되어 있음.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	국지적 네트워크와 도시내부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음. 업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대학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뒷받침되는 강점이 내재되어 있음.
여의도동, 삼성-역삼동 일대	정보통신 및 컴퓨터 업종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으며 국내수준 네트워크와 해외수준 네트워크가 활발함. 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면서도, 업종이 첨단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향후의 산업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 : 박경환(2000)에서 재작성.

났다. 이는 높은 지가, 인프라 미흡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집적지의 특성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요컨대, 벤처기업 집적지를 통해본 서울 산업공간의 분포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한 동남부지역의 급부상과 기존 제조업 집적지역의 재집중, 그리고 도심과 외곽지역의 쇠퇴로 정리할 수 있다. 업종별로도 지역간 차이가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남부지역은 정보처리관련산업, 서남부지역은 일반 기계산업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었다. 이는 벤처기업 집적지가 지역별로 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벤처집적지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정책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집적지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기존의 벤처집적지와는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벤처기업의 집적을 통해 지역성장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물리적 시설위주 정책과는 다른 정책이 요구되는 것

이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 4.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정의 및 현황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로 정의가 가능하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민간빌딩의 경우 3층 이상 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고, 둘째, 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의 총 연면적(전용면적) 중 50%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셋째,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지원시설이 해당건축물의 총 연면적의 75%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넷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지원시설이 차지한 면적 외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벤처관련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중소기업청 벤처지원국).

한편 벤처기업 창업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풍부한 자금지원과 더불어 원활한 입지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산업단지에 적용 받는 각종 혜택(예: 재정지원, 지방세 감면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지원, 신용보증지원, 입지지원, 기술인력지원, 판로수출지원, 조세지원과 같은 직·간접적인 지원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밖에 벤처빌딩 권역지역을 확대하고 용도변경허가를 허용함으로써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지역에는 자유로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벤처빌딩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sup>7)</sup>.

2001년 3월 현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59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이 104개(전체의 70%)로 단연 많고, 부산 4개, 대구 2개, 인천 6개, 대전 6개, 경기 30개, 강원 1개, 충북 1개, 충남 1개, 전남 1개, 경북 3개 등이다. 서울 내부에서는 강남구(52개)와 서초구(25개)가 전체의 7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한 기존의 벤처기업집적지 주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문제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정책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도권 과밀, 도심지 공장시설 입지에 따른 생활환경악화,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는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의 목적상 네트워크 형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과 같이 기업의 물적 공간제공에 중점을 두는 시

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정책의 대부분은 기업의 입주공간 제공에 주목적을 두고 사후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러한 부지중심의 계획은 물리적 공간의 공급을 강조하는 반면 부지내에 입지한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개별 부지나 단지내에서 유발된 효과의 지역내 확산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된다. 다시 말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같이 제도의 취지가 네트워크의 형성과 공간적 집적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 역시 공간적 집적이 곧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연결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이 반드시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류승환, 1999:44).

다음 장에서는 관악구내 벤처기업집적시설(일명 벤처타운, 이하 관악구 벤처타운)에 입주한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 업체들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악구 벤처타운을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 및 지방정부의 개입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는 향후 유사한 벤처집적시설 연구 및 평가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사례조사 : 관악구 벤처타운

### 1) 조사개요

조사는 크게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0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설문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업체의 일반현황, 연구개발형태와 혁신성 정도,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나 아이디어의 출처, 기업활동의 지역연계, 업체간 소속감 등이었다. 설문조사는 관악구내 서울특별시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오성

벤처타워(신림동), 오너벤처타워(봉천동), 동서리치빌딩(봉천동)에 입주한 50여 개 벤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객관식 설문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27개 업체였다(회수율 54%). 설문자료는 통계 프로그램(SPS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면접조사는 벤처기업체 대표 및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벤처타운 내 업체들의 현황과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 2) 현황

관악구는 1998년 8월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내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종 대학교의 우수한 인력자원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업체를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제상 혜택을 살펴보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중 창업 후 2년 이내인 업체에 대해서는 5년 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둘째, 기술신용보증기금, 창업투자회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벤처기업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임대보증금은 시설자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실제 총액의 1/3 수준만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서울대학교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투자사, 금융전문가 등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악구 벤처기

업 운영심사위원회를 통해 벤처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관악구 벤처타운 관련 공무원과의 면접조사).

2000년 12월 현재 관악구에는 3개의 벤처빌딩이 운영되고 있다(〈표 6〉 참조). 1998년 신림동 오성벤처타워가 관악구내에서는 처음으로 벤처빌딩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1999년에는 봉천동의 오너벤처타워와 신림본동의 동서리치빌딩이 벤처빌딩이 되었다. 임대보증금은 입주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총 140만 원 중 자기 부담금은 약 30만 원 정도이다. 이 중 나머지 비용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연 이자율은 9% 전후에서 결정되는데, 대출을 할 경우 입주업체는 매월 그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관리비의 경우 각 입주업체 별로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예: 가스비, 전기, 수도료 등)은 사용량에 따라 내고, 평균 월별로 약 6천 원 정도의 공동비용(예: 공동관리비, 공동전기료 등)을 일괄적으로 지출하고 있다(한 벤처업체 대표와의 면접조사).

입주업체의 특성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로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관련 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빌딩별로는 오너벤처타워에 가장 많은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개의 빌딩중 오너 빌딩이 가장 최신의 건물이며, 사무실 크기도 평균 10평 정도로 소규모 신생기업이 입주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관악구내 벤처빌딩 입주업체 현황

(단위 : 개)

건물명 \ 업종	전기/전자	컴퓨터/멀티 미디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생명/의료/환경	산업기기	기타	합계
오성벤처타워	1	-	1	5	-	-	-	7
오너벤처타워	5	6	5	7	3	3	1	30
동서리치빌딩	1	5	2	3	2	-	-	13

### 3) 사례조사

#### ① 조사대상업체 일반현황

설문에 응한 업체의 일반현황을 우선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29.6%)과 제조업(29.6%)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1997년 이후 설립되었는데, 특히 1999년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가 전체의 44.4%, 그리고 11명 이상 20명 이하가 전체의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10억 이하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매출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에는 41%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인력을 살펴보면 5명 이상 10명 이하가 전체의 6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연구개발형태와 혁신성 정도

다음은 조사대상업체들의 연구개발형태와 혁신성 정도<sup>8)</sup>를 파악한 것이다. 우선 연구개발형태를 살펴보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는 공동연구나 기업간 협력연구와 같은 연계사업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의 혁신성을 살펴보면 신제품개발(69.2%)과 기존제품개량(61.5%)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공정개선(15.4%)이나 자금조달 및 운용의 혁신비율(38.5%)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공정개선 비율이 낮은 것은 별도의 생산공정을 갖춘 벤처업체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요컨대, 벤처타운 내 벤처업체들은 신제품개발이나 기존제품 개량과 같

은 기술혁신분야는 상당히 앞서있는 반면, 기업간 공동 연구와 같은 분야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나 아이디어의 출처

벤처업체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나 아이디어의 출처를 살펴보면 1순위로 기업내부(66.7%)와 대학연구기관 혹은 기업지원기관(11.1%)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순위로 공개된 정보원(38.5%)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아직까지도 기업내부의 정보나 아이디어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연구기관 혹은 기업지원기관에 대한 의존도 또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즉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분리 창업한 회사일수록 그 의존도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나 아이디어의 지역별 출처를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비중(48%)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해외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벤처타운 업체들 중 상당수가 해외기관이나 업체들과 정보나 아이디어의 공유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기업활동의 지역연계

기업활동의 지역연계를 살펴보면 생산(40%)과 연구개발(37%)은 관악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판매(35%) 및 정보서비스비중(27%)은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다음에는 지역내/지역간 연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지역내(관악구) 연계를 살펴보면 인적, 물적, 기술, 정보교류(44.4%)를 제외하고는 연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판매를 한다는



표 7. 생산, 판매, 정보서비스, 연구개발의 지역연계

구분	지역연계					합계
	관악구	서울시	경기도	국내 기타지역	해외	
생산	40	19	18	13	9	100
판매	11	35	13	28	12	100
정보서비스	18	27	14	24	16	100
연구개발	37	27	12	13	11	100

(단위 : %)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 기업체단위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8) 참조). 한편 다른 지역과의 연계는 지역내 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산활동의 협력관계(55.6%)나 공동연구활동(59.3%) 등의 비율이 높았다(표 9 참조).

#### ⑤ 업체간 소속감

지역내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우선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역내에서 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중 7명(25.9%),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20명(74.1%)이었다. 그리고 지역내 다른

업체들과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중 9명(33.3%),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8명(66.7%)이었다. 한편 지역내 업체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중 17명(63%),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0명(37%)이었다. 마지막으로 업체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중 14명(51.9%),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3명(48.1%)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동일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애로사항 등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인력을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대관

표 8. 지역내 연계

구분	하고있다		하고있지 않다		합계
	빈도	%	빈도	%	
생산활동의 협력관계	9	33.3	18	66.7	27(100)
공동연구활동	8	29.6	19	70.4	27(100)
인적, 물적, 기술, 정보교류	12	44.4	15	55.6	27(100)
공동판매	3	11.1	24	88.9	27(100)

표 9. 다른 지역과의 연계

구분	하고있다		하고있지 않다		합계
	빈도	%	빈도	%	
생산활동의 협력관계	15	55.6	12	44.4	27(100)
공동연구활동	16	59.3	11	40.7	27(100)
인적, 물적, 기술, 정보교류	11	40.7	16	59.3	27(100)
공동판매	11	40.7	16	59.3	27(100)

계는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⑥ 소결

이 조사에 따르면 관악구 벤처타운내 입지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1997년 이후 설립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들이므로 나타났다. 종업원은 10명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이상이 연구개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은 10억 이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거의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업체들이 전형적인 신흥 벤처기업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조사대상업체들의 연구개발형태와 혁신성 정도를 살펴보면 신제품개발이나 기존제품개량과 같은 기술혁신분야는 상당히 앞서있는 반면, 기업간 공동연구와 같은 분야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나 아이디어의 출처를 살펴보면 1순위로 기업내부와 대학연구기관 혹은 기업지원기관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순위로는 공개된 정보원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업활동의 지역연계를 살펴보면 생산과 연구개발은 관악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판매 및 정보서비스 비중은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내 연계와 지역간 연계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지역내 연계의 경우 인적, 물적, 기술, 정보교류를 제외하고는 연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판매를 한다는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과의 연계는 지역내 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활동의 협력관계나 공동연구활동 등의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업체간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는 동일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고 애로사항 등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인력을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대관계는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결론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집적을 위한 시설의 제공보다는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기반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기업간 네트워크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책은 대부분 물리적 시설의 공급을 선호하고, 종합적 시각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단기적 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류승한, 1999:5-6).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정책은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유치하여 육성시키려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은 과거의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단순한 입지제공과 행·재정상의 간접적인 지원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책의 대부분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사례로 선정하고 있는 관악구 벤처타운의 실태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의 대부분은 자체 기술개발과 같은 기술혁신정도는 강하지만 공동연구개발과 같은 분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연계 또한 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산활동의 협력이나 공동

연구활동의 지역간 연계는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업체들간 연계 또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요컨대, 관악구 벤처기업집적시설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지역내·외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장래를 밝게 보는 이유는 이들 업체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연구소에서 분리창업된 벤처기업들이 지역내에 자리잡으면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자원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 지역자원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내 관련단체, 은행, 인적자원, 지역의 분위기 등 유·무형의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러한 자원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지역자원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장래 시장수요에 대한 철저한 예측이 있어야 한다. 별도의 전문가집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기존 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특화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내 기존산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대학내 연구소에서 분리창업한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업체들을 기존 지역내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고용안정효과와도 연결된다.

넷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역산업정책 수립에는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지역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註

- 1) 벤처산업은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벤처투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 영향을 받아 9월 이후에는 벤처창업 또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업체나 새로 창업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핵심기술력과 수익기반이 탄탄한 소위 기술벤처기업이란 사실이다(한경비즈니스, 2000년 12월 4일).
- 2) 한정화(1996)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기업가주의정신, 산업조직, 경영전략, 종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홍성도(1998)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예비기, 창업기, 초기 성장기(도약단계), 고도 성장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벤처기업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논의로는 제품의 발달단계에 따라 기업의 입지가 달라진다는 제품주기이론(Production life cycle)과, 제품주기이론이 가진 시장 결정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능동적인 경영전략이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윤주기이론(Profit life cycle theory) 등이 있다.
-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Nicholisin(etc), 1981, The Role of the Inner City in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 Urban Studies 18(1) 참조.
- 4) 네트워크 접근은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기업조직 및 공간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분석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 Cooke and K. Morgan, 1993, The network paradigm: new departures in corporate and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11 참조.

- 5) 벤처기업 집적지는 벤처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산업 집적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류승한(1999)은 지역산업 집적지를 '지리적 근접성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산업 클러스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의를 따른다.
- 6) 구로구에서는 공단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지가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현상의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규모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디지털 산업단지(구 구로공단의 새 이름)를 제조벤처 기업의 요람으로 육성,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벤처중심의 테헤란밸리와 더불어 벤처기업의 양대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조선일보, 2000년 12월 14일).
- 7) 벤처기업집적시설과 관련된 법규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
- 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 8) 이 조사에서는 벤처업체들의 혁신성을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량, 생산공정 개선, 판매 및 마케팅 혁신, 기업조직혁신, 자금조달 및 운용혁신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 9) 강원도는 41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춘천 하이테크 벤처타운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각종 자금지원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춘천시는 상반기 중에 하이테크벤처타운이 위치한 지역 일대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계획이다(동아일보, 2000년 3월 3일).

## 참고문헌

- 기정훈, 1997, 벤처기업 형성과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미성, 2000, 산업집적과 기업의 혁신수행력,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 박경환, 2000, 서울시 벤처기업 네트워크의 도시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박삼욱, 1998, "세계화/지방화와 경제공간의 조직",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
- 박삼욱, 1998, 현대경제지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용규·김신경, 1997,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양현봉 외, 1997, 벤처기업의 실태 및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 오정운, 2000, 벤처기업의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진, 1998, 소규모 산업집적지역 형성과 기업연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승한, 1999, 지역산업집적 촉진방안 연구 -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 국토연구원
- 정병순, 2000, 지역경제체계의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통치체제의 작동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최지훈, 1992, 기업간 관계의 변화가 지역공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화, 1996,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중소기업연구원
- 홍성도, 1998, 벤처비즈니스의 이해, 학문사
- Cooke, P., and Morgan, C., 1993, "The network paradigm: new departures in corporate and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D, 11, pp. 543-546.
- Cooke, P., Uranga, M.G., and Etxebarria, G., 1998,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 pp. 1563-1584.
- Nicholson, B. (etc), 1981, "The role of the inner city in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 Urban Studies, 18(1).
- Batten, D. F., 1995,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32(2).
- Park, Sam Ock, 1996, "Networks and Embeddedness in the Dynamic Types of New Industrial District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4), pp. 476-495

Park, Sam Ock, 1997, "Industrial Restructuring for the Sustainable Cit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1(1), pp. 47-67.

Saxenian, A., 1981, Silicon Chips and Spatial Structure: the Industrial Basis of Urbanization in Santa Clara Country,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U. C, Berkely, 김원 역, 1989, 첨단과학연구도시, 박인사

Saxenian, A., 1994, Regional Advantage, New York : Harvard University Press

####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mipc.or.kr>)

관악구청 홈페이지 (<http://www.kwanak.seoul.kr>)

#### 신문기사

조선일보, 2000. 12. 14, "구로공단 디지털 벤처단지로 변신"

한경비즈니스, 2000. 12. 4, "테헤란벨리는 구조조정중"

**Abstract**

**Review and Prospects on Venture Firm Accumulation Center: The Case of Kwan-Ak Venture Town**

Ji Hoon Choi\*

The study examines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spects of venture firm accumulation center in the case of kwan-ak venture town. The survey shows most of companies have been founded since 1997. Their major items are software development and the average employees are under 10 workers.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about the type of R&D and the level of innovation, technology innovation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 is advanced whereas tacit innovation like inter-firm cooperation is very weak. And the source of idea and information is concentrated on the within-firms and research cent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regional linkage, the dependence of production and R & D is large on kwan-ak-gu, but sales and information services have emphasis on Seoul area. In the light of the affiliation of inter-firm, they response sympathy with cooperation, but could not strengthen their commercial ties yet. At last, the policy for venture firm accumulation center must intend to make tacit measures through inventing of system instead of the simple means such as the assistance of location, finance and tax.

**Key words** : venture firm accumulation center, network, inter-intra regional linkage, innovation

---

\*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시 관악구 벤처타운 사례조사 결과

표 1. 업종

업종	빈도	%
서비스업	7	26.0
소프트웨어개발	8	29.6
연구 및 서비스	1	3.7
인터넷사업	1	3.7
제조업	8	29.6
기타	2	7.4
합계	27	100.0

표 2. 설립년도

설립년도	빈도	%
1997	3	11.1
1998	8	29.6
1999	15	55.6
2000	1	3.7
합계	27	100.0

표 3. 종업원 수

구 분	빈도	%
4명이하	3	11.1
5명-10명이하	12	44.4
11명-20명이하	8	29.6
21명-30명이하	3	11.1
31명이상	1	3.7
합계	27	100.0

표 4. 연간 매출액

구분	빈도	%
4억이하	5	38.5
5억-10억이하	4	30.8
11억-0억이하	2	15.4
21억-30억이하	1	7.7
51억이상	1	7.7
합계	13	100.0

표 5. 매출액중 연구개발 비중

구 분	빈도	%
5%-10%이하	1	9.1
11%-20%이하	3	27.3
21%-30%이하	1	9.1
31%-40%이하	1	9.1
41%-50%이하	2	18.2
51%이상	3	27.3
합계	11	100.0

표 6. 연구인력

구분	빈도	%
4명이하	4	23.5
5명-10명이하	11	64.7
11명-20명이하	1	5.9
21명-30명이하	1	5.9
합계	17	100.0

표 7. 연구개발형태

구 분	빈도	%
독자적 수행	17	63.0
공동연구	8	29.6
타기업협력연구	2	7.4
합계	27	100.0

표 8. 기업의 혁신성정도

(단위 : 개, %)

구분	사례	있다		없다		합계	
		개	%	개	%	개	%
신제품개발	신제품을 개발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18	69.2	8	30.8	26	100.0
기존제품개량	제품의 성능, 설계, 부품 등의 개량	16	61.5	10	38.5	26	100.0
생산공정 개선	자동화 등 새로운 생산기법 도입	4	15.4	22	84.6	26	100.0
판매 및 마케팅 혁신	해외시장 개척, 영업조직 등의 혁신	14	53.8	12	46.2	26	100.0
기업조직혁신	인사제도, 노무 등 기업조직 혁신	12	46.2	14	53.8	26	100.0
자금조달 및 운용혁신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의 도입	10	38.5	16	61.5	26	100.0

표 9. 정보나 아이디어의 출처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기업내부	18	66.7	2	7.7
공급자 및 외주업체	1	3.7	1	3.8
고객 및 판매처	1	3.7		
동종기업	2	7.4	6	23.1
대학연구기관 혹은 기업 지원기관	3	11.1	7	26.9
공개된 정보원	2	7.4	10	38.5
합계	27	100.0	26	100.0

표 10. 정보나 아이디어의 출처(지역별)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관악구	1	3.7	3	11.1
서울시	9	33.3	5	18.5
수도권	4	14.8		
기타국내지역	5	18.5	4	14.8
해외	8	29.6	13	48.1
합계	27	100.0	25	100.0